



즉시 배포용: 2022년 1월 31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공식적으로 CUNY가 수업료를 지불하지 않은 학생 및 졸업생들의 성적 증명서를 공개하는 관행을 중단한다고 발표

Hochul 주지사의 2022년 시정 연설 계획에 따라 모든 대학에서의 성적표 공개 중단

회계연도 2023 예산에는 모든 고등교육 기관에서 징벌적 채무 상환 관행을 중단하는 법안 포함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 시립 대학교 이사회(City University of New York Board of Trustees)가 월요일에 CUNY 대학들이 등록금 잔액과 학비를 갚지 못한 학생들과 졸업생들에게 공식적인 성적 증명서와 입학 증명서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을 영구적으로 폐지하기로 투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CUNY의 2021년 8월 이 정책의 중단에 따른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그녀의 [2022년 시정 연설](#)에서 이 관행을 중단하자고 제안했고, 이는 SUNY 이사회가 성적표 공개 관행을 종료한다는 [발표](#) 이후에 따른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의 2023 회계연도 예산에는 또한 모든 고등 교육 기관에서 이러한 관행을 종료하기 위한 법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교육 기간 내내 열심히 공부하며 돈을 받기 위해 성적표를 인질로 잡는 것은 우리가 전면적으로 끝내야 하는 야만적인 관행입니다. 뉴욕 시민들과 우리 주의 학교에 다니기 위해 온 학생들이 기회를 얻는 것을 방해하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한다면, 성공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CUNY가 이러한 관행을 종식한 것을 칭찬하며 뉴욕의 모든 학생들이 성적 증명서 공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쓰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결정 역시 전국의 대학과 대학교들이 학생과 졸업생들의 성적증명서를 부채 추심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성찰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CUNY 학생들의 76%가 빚 없이 졸업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여전히 미납된 등록금과 수업료로 이어지는 재정적인 장애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이러한 미지급 잔액은 활동비, 도서관 벌금 및 기타 부대 비용에서 발생합니다. 학교 성적표를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은 졸업장을 받고 직장에 들어가거나 CUNY 또는 다른 기관에서 교육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성적 증명서 보유 금지는 지난 7월 CUNY 컴백 프로그램의 역사적인 발표 이후 이루어졌으며, CUNY 컴백 프로그램은 미국 최대의 부채 탕감 계획을 통해 57,000명 이상의 학생들의 미납 수업료와 수업료를 [1억 달러 삭감했습니다](#).

대학이 컴백 프로그램을 통해 수천 명의 빛을 탐감하고 성적 증명서를 볼모로 하는 관행을 중단한 이후, CUNY는 42,852명의 학생들을 위한 성적 증명서를 배포했습니다.

CUNY의 Félix V. Matos Rodríguez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온정적인 행동은 모든 배경을 가진 우리 학생들이 교육 및 진로 목표를 추구하면서 형평성을 보장한다는 대학의 사명을 강화합니다. 모든 CUNY 학생들과 졸업생들이 상황에 상관없이 그들의 학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들이 뉴욕 경제 재기를 이끄는 데 도움을 주면서 경력을 쌓고, 교육에서 전진하거나 직장에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뉴욕주의 고등 교육 기관에 걸쳐 이 관행을 표준화하라는 Hochul 주지사의 명령에 고무되었습니다. 우리는 주지사의 리더십과 확신에 감사를 표합니다."

뉴욕 시립 대학교는 미국 최대의 도시 공립 대학으로, 뉴욕시의 생명력에 중요한 요소인 사회적 이동성의 혁신적 동력입니다. 미국 최초의 무료 고등교육 기관으로 1847년 설립된 뉴욕 시립 대학교는 현재 뉴욕시 5개 자치구에 걸쳐 커뮤니티 칼리지 7곳, 시니어 칼리지 11곳과 대학원 또는 전문 교육기관 7곳이 있으며, 이러한 교육 기관들은 26만 명의 학부 학생들과 졸업생들을 교육하고 매년 55,000개의 학위를 수여합니다. 뉴욕 시립 대학교의 품질과 경제성이 결합되어 아이비리그(Ivy League) 대학을 모두 합친 것의 거의 6배에 달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중산층과 그 이상으로 이끕니다. 대학 졸업생의 80% 이상이 뉴욕에 머물며 도시의 경제, 시민 및 문화생활의 모든 측면에 기여하고 모든 부문에서 도시의 인력을 다양화합니다. 뉴욕 시립 대학교의 졸업생과 교수진은 노벨상 13개와 맥아더 "천재" 지원금(MacArthur "Genius" Grants) 26회를 포함하여 많은 권위 있는 명예를 받았습니다. 대학교의 역사적인 사명은 오늘날에도 계속되어 재력이나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일류 공립 교육을 제공합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